일반논문

페소화 위기 이후 멕시코의 정치경제 변동:

- 권위적 근대화로부터 "민주적 근대화"로의 이전 -

김기현(한국외대 외국학종합센터 중남미연구소)

글의 순서

Ⅰ. 서 론
Ⅱ. 페소화 위기의 교훈과 시장경제의 지속
Ⅲ. "민주적 근대화"
Ⅳ. 결론 및 향후 전망

"개혁(Perestroika)은 정치적 개방(Glasnost)에 의해 동반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Mikhail Gorbachev-

Ⅰ. 서 론

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 변동의 이른바 화두는 이중전환이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민주화와 국가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전의 동시 달성을 의미한다. 이중전환을 보는 많은 정치학자들의 시각은 현실적 대세인 시장을 당위로서의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쉐보르스키, 1991; 이영조, 1998)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장 경제로의 이전이 유발하는 일시적 경제 상황의 악화나 삶의 조건의 파괴와 같은 경제사회적 비용은 국가에 따라 새롭게 회복된 혹은 신생인 민주주의에 큰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개혁은 권위주의를 유혹하기도 하고, 혹은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 포기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함께 동시에 붕괴될 수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이중전환의 두 축인 민주화와 경제개혁이 동시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전체적으로 볼 때 80년대에는 민주화가 우선 되면서 경제개혁이 미루어졌었고, 90년대에는 시장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가운데 개혁의 효율적 지속적 추구라는 명분 하에 일부 국가에서 포고령(decreto)에 의한 위임민주주의 방식의 통치가 강화되거나, 친위쿠데타를 통한 대통령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 시도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의 최근 정치 경제 변동을 시장경제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리즈 연구의 첫 번째로서 멕시코 세디요 정권 6년(1994년 12월-2000년)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멕시코에 있어서 변화의 바람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80년대 초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외채 위기 타결을 위해 시작된 경제개혁은 그의 높은 경제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얼마가지 못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멕시코에서 본격적인 개혁은 88년 12월 살리나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차라리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낳을 지도 모르겠다-을 가지고서 경제개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치적 개방은 최소화함으로써 민주화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가 실현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원 의석과 주지사 자리 몇 개를 야당에 건네주는 "계산된 양보"에 불과했다.

멕시코의 정치체제는 60, 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사독재 정권

이 유행일 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것으로 비추어 졌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역내 다른 국가들에도 모두 민선정부가 들어서자 1929년 이래 제도혁명당(PRI) 일당 헤게모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비민주적 국가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민주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개혁에 치중한 살리나스는 경제개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민주적 정치 개혁을 뒤로 미루고 대통령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권위적 근대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에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전히 거의 독재자와 같은 절대권력을 향유하였으며, 제도혁명당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을 선거를 통한 70년 이상 장기집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였다.[1]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 정치체제는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자유주의 논객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2]에 의해 "완벽한 독재"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3]

---

1)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70년 이상 장기집권은 쉐보르스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 선거를 통한 것이라도 명백히 비민주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어야 하는 체계이다. 이익, 가치, 의견들이 다른 많은 정당들이 있고 규칙에 의해서 조직되는 경쟁이 있으며, 그리고 주기적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쉐보르스키, 1997, p. 28).

2) 페루가 낳은 세계적 작가인 요사는 자신의 이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자국에 이식할 것을 목표로 90년 대권에 도전했으나 후지모리에 패배한 후 지금은 스페인에 건너가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가고 있다.

3) 바르가스 요사를 비롯하여 멕시코의 옥타비오 파스, 엔리케 크라우제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자유주의 논객들은 1990년 8월 27일에서 9월 2일에 걸쳐 "20세기: 자유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규모 국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다니엘 벨을 위시하여 세계적 석학들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바르가스 요사는 멕시코의 정치체제를 "완벽한 독재(dictadura perfecta)"라고 선언함으로써 크게 주목 받은 적이 있다. 여기 그의 발언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멕시코의 경우는 완벽한 독재라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여러번 생각해 왔다. 완벽한 독재는 공산주의도 아니요, 구소련도 아니며, 그렇다고 쿠바나 피델 카스트로도 아닌 바로 멕시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독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휘저어 보면 독재의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위장된 형태의 독재이기 때문이다. 그를 독재로 규정하는 첫째 이유는 그의 영구성에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아닌 한 정당의 영구성을 말한다. 종신 정당으로서 이 정당은 비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에게 이로울 때 즉 자신이 민주적 정당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공간이다. 즉 자신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비판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억압된다." (Paz y Krauze, 1991: 160-161) 바르가스의 당시로서는 이런 "용감한" -왜냐하면 이 토론은 텔레비전을 통해 멕시코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발언은 크라우제

94년 12월에 발생한 페소위기는 살리나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본질적 부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페소위기는 자유시장경제 개혁을 보다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대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불만이 정치적으로 해소되도록 유도되어졌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세디요 정부의 국정 최대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의 정치 개혁은 결국 72년만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세디요 정권의 정치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의 출발은 당연히 페소화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첫 장에서는 우선 살리나스 전 정권의 권위적 근대화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멕시코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었던 페소위기가 멕시코에 던져준 교훈은 무엇이며 또 그에 따른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경제정책에 따른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들이 함께 분석되어 질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세디요 정권에 대한 평가의 핵심으로 선거개혁이나 대통령 권력 집중의 해소와 같은 그의 주요한 정치개혁의 내용을 짚어보고, 나아가 그러한 정치개혁에 따른 멕시코 정치의 실질적 변화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 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멕시코 민주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페소화 위기의 교훈과 시장경제의 지속

1. 살리나스 정권의 권위적 근대화

살리나스 정권(88년 12월-94년 12월)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를 강화하였다. 살리나스가

에 의해 "온건한 독재(dictablanda)" 그리고 파스에 의해 "일당 헤게모니 지배 체제(un sistema de dominación hegemónica de un partido)"라고 정의되면서 즉시 물타기가 시도되었으나 그의 발언이 몰고온 반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82년 외채위기 이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멕시코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정통성 시비를 해소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누가 보아도 투명한 방식으로 제도혁명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살리나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리나스는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 자본의 유입에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개방화, 민영화, 안정화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모두 외국 자본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살리나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국 자본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형태로 대량 유입되었고(90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 멕시코는 신흥시장 중 가장 많은 528억불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또 그것이 살리나스 정권의 제한적인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외부로부터의 약점을 크게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살리나스의 임기 말은 정치적 불안과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또 그에 따른 대규모 페소화 평가절하의 위험으로 멕시코에서 이탈하려는 외국 자본을 국내에 묶어 두는데 모든 힘을 바쳐야 했다. 물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위기는 피할 수 없었다.

어쨌든 외국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살리나스는 경제개혁을 철저히 단행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방화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개혁보다는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 개혁을 위한 효율성과 경제개혁에 따른 통치성(gobernabilidad) 확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80년대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은 경제 정책의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 잠시의 머뭇거림이나 후퇴를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 개혁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민주적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멕시코의 경우 국회나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정부 기구도 살리나스와 그의 경제관료들이 결정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개인적 이익을 위한 판단과 결정에 서조차도 그 정당성을 따질 힘과 권한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9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주요 정책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대부분 집권당과 주요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단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예는 비단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회를 해산한 페루의 후지모리나 포고령(decreto)에 의해 통치하는 위임민주주의 방식을 택한 아르헨티나의 메넴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살리나스 정권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극도로 강화된 것은 통치성의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살리나스 이전의 제도혁명당 지배체제가 내부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는 민중주의 분배연합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는 이것을 자신의 경제개혁과 부합되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구하는 신중도우파연합으로 대체해야 했다. 살리나스의 경제개혁이 시장과 민간 부문의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제도혁명당의 전통적 지지그룹인 국가 관료그룹과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지지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살리나스는 그들을 대신할 중도우파 동맹을 구축하여야만 했다.

이를 위한 살리나스의 정치 전략은 다음의 6가지 영역에 집중되었다. 1)정치적 엘리트 사이의 불화를 해소한다. 2)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 제도혁명당을 개혁한다. 3)기업가 부문과 화합의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4)민족행동당(PAN)과 동맹하여 선거개혁법을 무리하게라도 밀어붙인다. 5)좌파를 고립시킨다. 6)신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촉진한다. (Denise Dresser, 1997: 63) 이러한 정치 전략의 당면 목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88년에 확연히 드러난 제도혁명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9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명백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

한 것이었다.

중도우파 동맹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물론 안정화, 개방화, 민영화로 요약되는 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살리나스에게는 시장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소외계층의 불만을 달래고 그들을 지지그룹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살리나스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가급적 많은 힘이 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한적 자원을 정해진 목표를 위해 불만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연대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Solidaridad: Pronasol)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중개자의 매개 없이 국가가 직접 빈민층에 침투하여 사회복지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살리나스는 사회발전부 산하에 10만여 개에 달하는 지방위원회와 직접적 연결을 통해 사회프로그램을 통괄함으로써 자신의 가부장적 권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김병국, 1995: 55-56)

즉 살리나스는 시장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제도혁명당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화를 유보한 채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파격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개방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을 양보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페소화의 평가절상을 유지하여 중산층에 싼값으로 수입품을 제공하거나, 정치적 동맹자의 특권 유지나 Pronasol에 쓰일 정부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외자의 대량 유입과 같은 소위 "신민중주의(neopopulist)" 정책(Denise Dresser, 1997a: 64-69)이 불가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페소 위기의 정치적 원인이기도 하다.

2. 페소화 위기의 교훈

페소화 위기 이전 멕시코는 OECD에 가입하는 등 신흥시장에서 개혁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덩달아 개혁을 주도한 살리나스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칭송도 대단했으며 이를 기회로 살리나스는 막 탄생한 국제무역기구(WTO)의 초대 회장직을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살리나스의 개인적 운명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멕시코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페소화 위기 이후 멕시코는 경제 개혁 모범국가에서 실패의 전형적 모델로 변해버렸으며 살리나스 또한 자의 반 타의 반 외국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페소화 위기는 단순히 멕시코와 살리나스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냉전 이후 WTO가 발족하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막 성립되려는 시점에서 최초로 발생한 위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제적 면역 체계는 거의 전무했으며 그 전염성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이 성립되는 국제 경제 질서 자체에 대한 전반적 후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이목은 멕시코에 집중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도 비교적 신속했다.

페소화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주로 신자유주의 모델에 비판적인 세력들에서 나온 주장은 페소화 위기가 살리나스의 시장 경제 모델 자체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현재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긴축정책으로는 멕시코가 결코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정책은 낮은 성장률과 함께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해석이 가져올 대안의 부재로 인해 그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페소화 위기를 보는 일반적 시각은 그것을 시장 경제 모델 자체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그 모델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오만과 실수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물론 이런 관점에 있어서도 자신이 취한 입장에 따라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다. 세디요를 비롯하여 그의 정부의 주요 관료들은 페소화 위기의 근본 원인을 페소화의 과대평가로 인한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11월에 평가절하를 미룬 것("11월의 실수: November Mistake")이 위기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살리나스를 비롯하여 페드로 아스페 전 재무장관과 같은 이들은 94년 수출이 23%나 성장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페소화는 결코 평가절상된 것이 아니었고, 자본 유출은 일시적인 것으로 콜로시오 대통령 후보의 암살로 시작된 정치적 불안이 그 원인이었으며, 세디요 정부가 단행한 12월의 어설픈 페소화 평가절하("12월의 실수: December Mistake")가 페소화 위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살리나스의 임기 중 개방과 페소화의 평가절상에 따라 대대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는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에 따라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4년부터 미국 이자율이 증가하고, 또 멕시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불안한 기미를 보이자 외국 자본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위 말하는 "정공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단기적으로는 NAFTA의 발효로 외국자본이 계속 유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외국 자본의 유입이 쉽지 않자 살리나스 정부는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페소화 평가절하라는 방안을 적용하는 대신 외환보유고를 풀거나 달러화 표시 단기 외채(Tesobono)를 발행함으로써 문제에 대응해 나갔다.

그러면 이때 왜 살리나스는 조기에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고 멕시코 경제를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빠지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바로 여기에 페소화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해답

이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평가절하가 연기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살리나스의 개인적 야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 후 멕시코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자리 메김하고 또 WTO 초대 회장이 되려는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그의 임기를 영광되게 끝내고 싶었다.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개인의 위상도 평가절하 한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야망 있는 살리나스에게 임기 중 평가절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정책이었다. 둘째, 페소화의 안정은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증대와 그에 따른 직업의 창출을 의미함으로 미국내의 반 NAFTA 세력들의 주장을 무마하고 NAFTA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페소화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셋째, 불안에 떠는 외국투자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페소화 안정의 지속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Peter H. Smith, 1997: 39-40).

이러한 해석은 결국 "11월 실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세디요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에드워즈와 나임은 페소화 위기가 주는 교훈을 9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중 세디요 정부의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내용은 환율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9가지 교훈 중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는 것은 외부적 쇼크에 약점을 노출시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제가 선호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환율이 평가절상되고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급격한 외부적 쇼크를 피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이다.[4]

4) 페소화 위기가 주는 9가지 교훈 중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자는 이제 세계금융시장의 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 균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의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 할 수 있다. 넷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만으로 외국자본의 움직임을 잡아둘 수는 없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국내금융구조가 거시적 지표와 상승 작용하여 위기를 발생시킨

멕시코 페소화 위기 탈출에 고리를 쥐고 있는 IMF의 시각은 위의 시각과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에 있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들이 페소화 위기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보다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완전히 노출된 신흥시장 국가들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IMF도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음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결국 페소화 위기가 세계 시장에 개방된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얼마나 엄격히 운용해야하는 가를 보여준 최초의 교훈적 사례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결론적으로 페소화 위기는 신자유주의 모델 자체에 대한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살리나스 정부에서 고집스럽게 방어되었던 고정환율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한편으로 긴축 정책은 보다 강화되었다. 94년의 페소화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공격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살리나스 정권에서 추진된 자유시장경제 개혁이 보다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idney Weintraub, 1997: 95).

3. 긴축정책의 강화

페소화 위기 직후 약 40일간 세디요 정부는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채무지불정지를 선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세디요 정부는 그러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디요와 그의 경제팀은 사회 각층과 집권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칙을 지속할 것을 받아들였다. 세디요는 그의

다. 여섯째, 정책입안자들은 단지 외채의 양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정부 통계의 투명성과 신속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덟째, 정책입안자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특히 중앙은행의 진정한 독립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홉째, 국제신용사회의 지지를 받는 긴축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강력한 정책적 처방의 국가적 실현 의지만 있으면 경제 회복은 의외로 조기 달성이 가능하다(Edwards and Naím, 1997: 18-29).

권력이 기초를 두고 있는 정치적 동맹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정책의 탈정치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는 보다 강력한 긴축 정책의 적용이었다.

세디요의 이러한 선택에는 82년의 외채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10년 간의 장기 침체를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NAFTA로 인해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가 가지는 경제 정책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현실적 여건이 반영되었다.

94년 12월 20일 페소화가 15% 평가절하 된 데 이어 이틀만에 페소화 환율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리고 NAFTA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각각 60억 달러와 7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금융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 따라 95년 1월 3일 세디요 정부는 정부와 민간 부문 대표들 사이의 협약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화합 협정"을 통해 GDP 성장률 1.5%, 달러당 페소 환율 4.5유지(평가절하 이전 19일에 비해 약 40% 평가절하된 수치), 물가상승률 19%,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4분의 1이 감소된 GDP의 4% 수준으로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초기 경제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자본통제에 대한 소문이 겹쳐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다시 시작되었다.

결국 멕시코는 자체적 위기극복 불능 사태에 빠졌고, 클린턴이 주도한 500억불 구제금융 패키지[5]를 통해 간신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제금융으로 인해 멕시코는 최악의 외환 및 금융시장 위기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혹한 조정 프로그램을 채택해야만 했다. 95년 3월 9일에 발표된 신 거시경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5) 클린턴이 주도한 긴급 구제 금융 패키지는 미국 200억 달러, IMF 178억 달러, 국제결제은행 100억 달러, 세계은행 20억 달러로 구성되었다.

〈표1〉 신거시경제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비 고
재정정책	-부가가치세 인상(10%→15%) -재정지출 축소(3,435억 페소→3,380억 페소) -공공요금 대폭 인상(휘발유: 35%; 전기료: 20%, 전화료: 10%-30%)	-1995년도 재정수지 흑자 기도 (GDP의 0.48%)
통화 및 환율정책	-통화증가 억제 (통화량 증가 100억 페소로 제한) -은행의 지불준비금초과 어음 발행 억제 -변동환율제 유지	-1995년 평균 환율 달러당 6.0페소 유지
상업은행 및 부실기업 지원	-은행의 유동성 보조를 위한 180억 페소 추가 지원 -외국은행의 지분참여한도 상향 조정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지원	-세계은행, IDB로부터 30억달러 도입 예정 -기업 도산 방지
임금 및 사회복지정책	-최저임금 10% 인상 -실직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저소득자를 위한 식료품보조금 지원 확대	
1995년도 경제목표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42% -경상수지적자: 23.8백만 달러	1994년도 -경제성장률: 3.0% -물가상승률: 7.1% -경상수지적자: 306억 달러

출처: 수출입은행, 1995: 99

신거시 경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은 이것이 환율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생에 기초한 국내 수요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 반면 정부지출은 축소했는데 특히 비 금융부문에서의 공공지출은 9.8%(GDP의 1.6%에 해당)나 감소되었다. 통화량의 증가도 100억 페소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을 감안할 때 실제 25%의 축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한 10% 최저 임금 인상률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질 수준에서 임금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거시경제 프로그램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통파 경제 정책을 보다 심화한 것으로서(Jonathan Heath,

1997: 143) 살리나스 시절 후반부에 다소 느슨해진 재정의 고삐를 다시 졸라매고 경기후퇴를 전제로 하여 초 긴축의 내핍을 통해 경제회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Macario Schettino, 1997: 24-26).

4. 긴축정책의 결과

신거시경제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초긴축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 경제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 주식시장이었다. 페소화 발생 약 7개월 후인 95년 7월 18일의 종합주가지수는 당해년도 최저치인 2월 27일의 1,448보다 약 70% 이상 상회하는 2,480에 도달함으로써 경제위기 직전인 94년 12월 19일의 2,231을 넘어섰다(수출입 은행, 1995. 7월호 참고). 페소화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타난 최초의 성과는 외적 불균형의 제거였다. 페소화 평가 절하와 미국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94년 총 608억불이던 상품수출액이 95년에 795억불로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가 94년 184억불 적자에서 95년 70억불 흑자로 돌아섰으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페소화 이전 GDP 대비 7% 수준에서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긴축으로 인해 국내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 증대는 안정과 회복을 위한 유일한 출구의 기능을 했다(<표2> 참고).

경제도 서서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1% 이하 수준에서 유지하는(95년 0.2%, 96년 0.1%) 초긴축 정책으로 인해 95년 페소화가 120% 평가절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52%에 불과했으며 96년에도 물가상승률은 27.7%를 기록하는데 그침으로써 경제는 확연히 안정되어 갔다(<표2> 참고).

성장도 재개되었다. 페소화 위기 직후인 95년 -6.2%이던 GDP 성장률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페소화 위기 이후 1년 반인 96년 2 사분

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 해에는 목표치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5.2%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페소화 위기 발생 1년 반만에 멕시코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페소화 위기 이후 만 2년만인 96년 말에는 재무 장관인 기예르모 오르티스가 외채조기 상환을 밝히면서 멕시코의 대외 신뢰도가 회복되었으며 경제도 완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El Universal, 96년 12월 31일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여전히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성장이 전적으로 수출 부문에 의존함으로써 경제가 수출경제와 국내경제로 양분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96년의 GDP 성장률 5.2%는 주로 수출 부문의 성장으로 인한 것으로서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내시장 부문은 95년 -14.99%(외채위기가 발생한 83년의 2배가 넘는 수치)이어, 92년에도 -0.01%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멕시코 경제는 "경제의 나머지 부문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성장을 유지하는 수출 속지(enclave)경제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경제" 두 부문으로 확연히 나누어지게 되었다(José Luis Calva, 1997: 11).

〈표2〉 세디요 정권 6년(1995-2000)의 주요경제 통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a
GDP 성장률(%)	4.6	-6.2	5.2	6.8	4.9	3.5	4.5
1인당 GDP성장률(%)	2.8	-7.8	3.4	5.1	3.2	1.8	
소비자 물가지수(%)	7.1	52.1	27.7	15.7	18.6	13.9	
도시 실업률(%)	3.7	6.2	5.5	3.7	3.2	2.6	
실질임금(95=100)	114.9	100	90.1	89.1	91.5	92.0	
GDP대비 재정수지(%)	-0.3	-0.2	-0.1	-0.6	-1.2	-1.3	
실질실효환율지수 (95=100)	67.6	100	89.0	77.2	77.3	71.7	
수출(백만 달러)	60 882	79 542	95 450	121 831	129 387	148 330	
무역수지(백만 달러)	-18 464	7 089	6 765	623	-7 913	-4 920	

경상수지(백만 달러)	-29 419	-654	-1 000	-7 454	-15 957	-13 750	
순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10 973	9 526	9 186	12 831	10 238	11 000	
달러화표시 주가지수 (97년 6월 기준=100)	91.1	66.5	77.3	114.1	69.5	120.3	
총 외채(백만 달러)	142 199	169 699	163 499	152 976	161 213	161 500	

a) 추정치
출처: CEPAL, 1999; 1996; 2000

수출 부문에 고용된 인구가 멕시코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출 부문에 있어서의 성장이 멕시코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연간 약 120만명 정도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가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출 부문에서 고용이 실업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은 주로 비공식 부문과 같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김기현, 1999: 85-94).

고용의 문제와 함께 임금 구매력의 감소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95년의 임금 구매력을 100으로 놓고 볼 때 96년 이후 4년 간의 3% 이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99년 수치는 92로서 페소화 위기 이전의 수치인 114.9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다(<표 2> 참고).

그러나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외적 불균형에 있다. GDP 성장률이 97년 2 사분기에 8.8%를 기록함으로써 페소화 위기 이후 2년 반만에 그 정점에 이른 동시에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경기 호전과 페소화 실질 환율의 강세로 인해 소비재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3.8% 증가함에 따라 페소화 위기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98년에는 수출의 10%,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유가가 하락하였고, 멕시코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한 아시아

상품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페소화 위기 이후 처음으로 79억불의 년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나 당초 예상했던 GDP 대비 2.5% 수준인 108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여 GDP 대비 3%를 돌파하는 159억불에 이르게 되었다. 외채도 꾸준히 증가하여 98년에는 GDP의 40%를 넘는 1,612억불을 기록함으로써 과다한 외채부담으로 인한 또 다른 외채위기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표2> 참고).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약 1년 앞두고서 세디요 정부는 불안한 시장을 달래기 위해 또 다시 긴축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99년 들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림에 따라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디요 정부는 2000년도에 긴축 재정 정책을 계속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그에 따라 재무장관 호세 앙헬 구리아는 2000년 재정 적자 목표를 99년의 GDP 대비 1.3% 보다 낮은 1.0%로 책정했다.

대통령 선거의 해에 그와 같은 긴축 정책의 강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세디요 정부가 정권 유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정부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승리를 위해 과거와 같이 선심성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던 세디요는 경제 안정을 위한 철저한 긴축을 실시할 수 있었다. 정치 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유효한 선택이었다.

Ⅲ. "민주적 근대화"

1. 대통령권력중심주의(presidencialismo)의 약화와 선거개혁

페소화 위기로 인해 살리나스와 제도혁명당(PRI)이 나라를 또 다시 경제적 위기에 빠트렸다는 국민적 분노가 팽배해졌다. 따라서 경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당의 안팎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도혁명

당의 일반당원들은 과거와 같은 민중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를 요구했으며 야당은 NAFTA의 재협상과 정부 역할의 증대를 주장했다. 정치권 밖에서도 가톨릭 교회는 신자유주의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남부 치아파스 지역에는 사파티스타 게릴라가 여전히 위협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의 지속을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디요 정부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처방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경제 사회적 스트레스는 정치적 방법으로 밖에 해결 될 수 없었다. 테크노크라트들이 기존의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불만의 완화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권위주의는 비록 경제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효율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고화하고 영구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직 민주주의만이 가능한 선택이었다.

세디요가 살리나스와는 달리 민주적 근대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상황적 조건 외에 개인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디요 정권은 제도혁명당 72년 역사에서 가장 약체였다. 세디요는 제도혁명당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닌 일반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처음 대통령에 임명된 미겔 알레만(1946-1952)이래 최초의 비 멕시코국립대학교 출신이기도 하다.[6] 또한 세디요는 루이스 도날도 꼴로시오 후보가 선거 유세 중 암살됨으로써 급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당내에 확고한 자신의 정치세력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비록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도혁명당 지배의 한 축을 이루어온 군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역대

6) "1970년에서 1988년 사이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는 멕시코의 정치인 8명중 한 명 이상이 저명한 정치인의 아들이며, 같은 기간 모든 정치인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주요 정치적 인물과 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미겔 알레만 이래 중앙 정치인의 50% 이상이 멕시코 국립 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Roderic Ai Camp, 1995: 133, 135)을 상기해 볼 때 세디요가 가지는 권력 기반의 취약성은 매우 확연히 드러난다.

대통령 중 가장 낮은 득표율(48.8%)로 당선되었다.

이런 모든 이유들로 인해 세디요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 기반은 매우 미약했다. 심지어 그가 당선된 그 날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제할 힘은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미약하고, 경제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세디요는 정치적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정치개혁은 크게 보아 당 내부적으로 대통령권력중심주의(presidencialismo)의 약화와 당 외부적으로 선거개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대통령권력중심주의는 체제의 가장 권위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절대 권력의 원천은 차기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데에서부터, 주지사, 국회의원, 사법부의 주요직, 국영기업의 사장 심지어 중간 관료까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 게다가 멕시코 헌법은 하원의원의 2년 단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특히 차기 대통령 후보 지명(dedazo)권은 대통령권력집중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세디요는 바로 이러한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포기하고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였다.

세디요의 차기 대통령 후보지명권 포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 먼저 권력 중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당과 각 지방의 정치 리더인 주지사들에게로 이동했다. 소위 "신연방주의 협약"에 따라 지방 정치인들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주정부는 전례 없이 재원과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와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정책 조정에 있어 빈번히 중앙정부와 맞섰고 심지어 게레로, 타바스코, 유카탄, 푸에블라와 같은 주의 주지사들은 대통령의 권위에 공공연히 정면 도전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력의 약화와 지방 권력의 강화로 인한 "제도혁명당의 붕

건제화"는 한편으로 정치적 무질서와 통치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게다가 경제 개혁 부진의 원인도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의 포기"로 비판받기도 했다(Denie Dresser, 1997b: 48).

그러나 차기 후보 대통령 지명권의 포기는 한편으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엄격하게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따라서 세디요의 대통령 후보지명권 포기선언은 당에 이제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생각을 버리고 공정한 선거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디요는 선거개혁의 길을 열 수 있었다(Luis Rubio, 1998: 16-17).

멕시코의 정치 개혁은 세디요가 결코 처음은 아니다. 77년에서 97년에 걸쳐 총 6회의 정치 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90년 이후에만 4회의 정치 개혁이 있었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의 산물로 1929년 탄생한 제도혁명당의 일당 헤게모니 지배 체제에 최초의 위기가 발생한 것은 68년이었다. 세계적인 진보의 바람이 멕시코에도 불어닥치면서 청년 급진 세력의 도전이 거세졌고 공산당의 불법화 등이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최초의 정치 개혁이 77년 로페스 포르티요 대통령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산당과 군소 좌익 정당의 합법화였다.

87년 데 라 마드리드 정권이 이룬 두 번째의 정치개혁은 부분적인 비례 대표제의 확대를 허용하면서(총 하원의석을 400석에서 500석으로 늘리면서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을 100석에서 200석으로 증가시킴) 동시에 다수당의 의석을 70%로 제한했다. 그로 인해 그 때까지 거의 존재가 미약했던 야당들은 하원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 대통령인 살리나스는 그가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에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집권 후 최대의 정치 개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가 허용한 3번의 정치 개혁은 결코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본질적 개혁이 아니라 단순히 야당에게 의석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 불과 했다. 이 시기 동안 살리나스는 야당에 대한 선물로 야당이 지금까지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원에서 의석의 최소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고, 혁명 후 처음으로 야당이 한두 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묵과함으로써 그들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살리나스의 정치 개혁은 본질적인 정치개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세디요는 1996년 가을 결국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정치개혁법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96년의 정치개혁법은 비록 그 후에 부차적인 규정들에 있어 야당과 불일치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선거과정 상에 나타났던 모든 야당의 문제제기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디요의 정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관리해 오던 연방선거관리 위원회를 의회에서 합의에 의해 지명된 비당파적 인물들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공정 선거를 위해 가장 핵심적 기관인 연방선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사실 중앙선관위의 비당파적 인물에 의한 통제는 살리나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준 것은 세디요의 몫이었다.

둘째, 선거자금과 관련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인 기부에 의한 사적 선거자금을 총 선거비용의 10%로 제한하고 대신 공적 자금을 대폭 증대시켰다. 합의된 공적자금은 94년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총액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 자금의 30%는 주요 정당에 똑같이 배분되고 나머지는 사전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모든 정당에 비율적으로 나누어 졌다. 선거자금의 명백한 한계 설정과 대폭적인 공적 선거자금의 배분은 지금까지 멕시코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공정 선거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셋째, 이번 정치 개혁은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중매체에의 불공평 접근이라는 문제도 해소하였다. 그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TV 100시간과 라디오 125시간을 언론 매체로부터 공적으로 구매해서 그

것을 정당들에게 공적선거자금을 배분한 것과 같은 비율로 나누어주었다.

중앙선관위의 명실상부한 독립, 선거 자금법 개혁, 언론매체에 대한 공평한 접근으로 대표되는 세디요의 정치 개혁을 통해 멕시코에서 선거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혁명당에 대한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7]

"그러나 민주주의 발사실험이 자리를 잡고 반대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멕시코가 진정 정치적으로 개방된 사회로의 이전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라는 세르히오 사르미엔토(1985: 139)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디요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내용보다는 그 실현의지 즉 실제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결과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2. 제도혁명당 헤게모니 붕괴와 평화적 정권 교체

세디요 정권 중반에 실시된 1997년의 선거에서 정치개혁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97년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첫째,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 있어 여소야대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제도혁명당은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42% 득표에도 실패함으로써(39% 득표: <표 3> 참고) 창당이래 처음으로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에 도달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에서도 6개 지역 중 2곳에서 더 패배함으로써 기존에 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지역과 이번에 야당이 승리한 멕시코 시를 합쳐 인구의 40%가 야당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제도혁명당 헤게모니의 붕괴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사실 제도혁명당 헤게모니의 붕괴는 야당의 대안으로서의 불확실

7) 그밖에도 96년 세디요의 정치 개혁은 멕시코 시장 직선제 도입, 득표율 2% 이하의 군소 정당의 등록 폐지, 다수당의 하원의석 비율 60%로 제한, 상원에 부분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 때문에 경제적 상황의 심각도에 비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Beatriz Magaloni, 1999: 210-217) 76년까지 명실공히 헤게모니 정당으로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온 제도혁명당은 그 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지지를 잃어가기 시작한다. 특히 88년 선거에서는 82년에 비해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각각 득표율이 20%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제도혁명당은 의회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또한 91년의 중간 선거에서는 살리나스의 PRONASOL을 앞세운 선거전략에 따라 의회에서 다시 60% 이상의 지지를 회복했다. 그러나 1997년의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은 과반수 의석에 필요한 42%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역사상 최초의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표3> 참고).

제도혁명당 패배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당의 내부 분열에서 찾을 수 있다. 1982년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부터 테크노크라트들이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적용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페소화 위기 이후 당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96년 3월에는 250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신자유주의의 종식과 경제정책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에 제출했으며, 96년 9월에는 선거를 통해 공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테크노크라트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다는 조항을 당의 규정으로 만들었다. 특히 97년에는 제도혁명당 내에 민중주의적인 중도좌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입지가 보다 강화되었는데, 그에 따라 상원의 제도혁명당 분파인 "Galileo 그룹"은 당 지도부나 당의 원칙에 공공연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남쪽 지역의 주지사들 동맹은 당의 통제권 획득을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와 근대화의 동시 달성 즉 "민주적 근대화"를 주장하는 세디요와 같은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들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화에 대해 거부하는 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제도혁명당의 권력 유지를 최대 목표로 그를 위해서는 패트론주의나 불법 선거와 같은 과거의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3〉 64년 이후 제도혁명당의 지지율(%) 변화

		제도혁명당(PRI)	국민행동당(PRD)	민주혁명당(PRD)
1964	대선 득표율(A)	88.8	11.1	
	하원 득표율(B)	86.3	11.5	
1967	(B)	83.3	12.4	
1970	(A)	83.3	13.9	
	(B)	80.1	13.9	
1973	(B)	69.7	14.7	
1976	(A)	93.6	———	
	(B)	80.2	8.5	
1979	(B)	69.7	10.8	
1982	(A)	71.0	15.7	
	(B)	69.3	17.5	
1985	(B)	64.8	15.6	
1988	(A)	50.7	16.8	
	(B)	49.7	17.3	
1991	(B)	61.5	17.7	8.3
1994	(A)	49	26	17
	(B)	———	———	16.2
1997	(B)	39	27	26
2000	(A)	35.7	42.7	16.5
	(B)	36.37	38.57	———

출처: Scott Mainwaring and Timothy R. Scully, 1995: 258, 274; 91년 이후는 신문, 잡지 자료 참고

그러나 이미 경제적 자유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패트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매수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들의 주장이 실현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제도혁명당은 이러한 내부 분열로 인해 비교적 공정하게 실시된 97년 중간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도달에 실패하는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97년 선거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야당 특히 중도좌파인 민주혁명당(PRD)의 부상이었다. 사실 제도혁명당의 일당 헤게모니 지배체제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야당의 역할을 했던 것은 국민행동당(PAN)이었다. 국민행동당은 94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10%대에 머물던 지지율을 20%대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97년 중간 선거에서는 큰 진전 없이 94년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인 26%에서 단

지 1% 상승한 27%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 그쳤다(<표3> 참고).

게다가 처음 실시된 멕시코 시장 선거에서 카를로스 카스티요 페라사라는 친제도혁명당 성향을 지닌 인기 없는 보수적인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를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초기에 40%까지 이르렀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민주혁명당의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에게 멕시코 시장직을 내주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국민행동당은 최근 지속적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정당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97년 선거에서도 역시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비센테 폭스를 비롯한 선거나 통치 경험이 있는 강경파들이 국민행동당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소위 "북쪽 야만인(Bárbaros del Norte)"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강경파 세력들은 권력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칙보다는 실용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제도혁명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도혁명당에 실망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여 결국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97년 선거의 가장 큰 놀라움은 제도혁명당의 지지하락이 아니라 좌파의 부상이었다.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가 이끄는 민주혁명당에 의해 대표되는 중도좌파는 88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9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지 17% 득표에 그침으로써 서서히 쇠퇴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지도자인 카르데나스는 당 총재직 재선을 금하는 당규에 따라 당의 공식적 통제권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패한 잘못을 물어 정치와 당 지도부에서 사퇴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 와중에 좌파의 부상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카르데나스는 최초의 멕시코 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멕시코 시의회 선거에서는 민주혁명당이 40개 구역 중 38개 구역에서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94년의 16.2% 득표에서 25.7% 득표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그로서 의석 수에서도 국민행동당의 122석을 넘어 125석으로서 제1 야당의 위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혁명당의 승리가 멕시코 정치 시스템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혁명당의 성공은 상당부분 입장의 온건화와 선거캠페인 전략의 적절성에 인한 것이지 그것이 유권자들의 좌파를 향한 전환으로 해석되어 질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해 제도혁명당에 대한 반대와 국민행동당에 대한 실망의 표가 온건화된 민주혁명당으로 모인 것이지 결코 좌파 이데올로기가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Kathleen Bruhn, 1999: 88-91). 심지어 민주혁명당은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집단들의 불안과 거부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어쨌든 세디요의 선거개혁 후 처음 실시된 중간선거는 멕시코 혁명 이후 최초로 여소야대라는 민주주의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의회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정책이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 암암리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최선인지를 의회에서 설명하고 이들을 납득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것은 권위주의 하에서 대통령과 제도혁명당에 집중되었던 권력이 의회로 이동하는 민주적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97년 선거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의미에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부정적 의미가 강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국민행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남부지역에서는 민주혁명당이 주로 승리하면서 이미 존재하던 멕시코의 지역적 분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로서 지역적 통합이나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97년 선거는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Michael Radu, 1997: 121-122).

그러나 97년 선거 결과에 대한 보다 근본적 비판은 그것이 "계산된 양보"라는 비난을 여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것은 두 거대 야당에 하나씩 당근을 던져 줌으로써

(민주혁명당에는 멕시코 시장직, 국민행동당에는 누에보 레온 주지사직, 그리고 다수의 하원의석)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제도혁명당의 전통적 전략으로 이해되어졌다. 물론 제도혁명당은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우파인 국민행동당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국민들은 의회, 주정부, 시정부에서 나타난 야당의 승리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trickle-up democracy") 것을 바라고 있었다. 평화적 정권 교체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2000년 대통령 선거는 마침내 멕시코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녹색당과 연합한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 후보는 42.7%의 지지로 35.7%를 획득한 집권당 후보를 물리치고 72년 간의 제도혁명당 일당 장기집권체제를 종식시켰다. 그럼으로써 멕시코는 최소한 정치의 형식면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비센테 폭스 개인의 카리스마와 변화를 바라는 대다수 멕시코인들의 열망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상당부분 민주적 근대화 전략을 채택한 세디요의 정치개혁 실현의지에 기인하는 바 크다. 세디요는 이번 선거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만듦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고 그의 정치개혁이 "계산된 양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멕시코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세디요 정치개혁의 완성이었다.

Ⅳ. 결론 및 향후 전망

페소화 위기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은 정치와 경제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페소화 위기는 기존의 시장경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페소화 위기는 시장경제 모델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수로 해석되어

졌다. 살리나스는 경제개혁에서 비록 제한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집권 말기에 개인적 이해 관계 등이 맞물려 시급했던 페소화 평가절하를 미룸으로써 보다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실수를 범했다. 그에 따라 세디요 정권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세디요 정권의 경제정책이 기존의 살리나스의 자유시장경제 정책과 다른 점은 거의 없다. 오히려 세디요는 긴축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다 큰 변화를 야기했다. 페소화 위기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경제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장경제 정책의 지속적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주화 만이 안정의 유일한 출구였다.

세디요의 정치 개혁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72년 간의 제도혁명당 일당지배체제의 막을 내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단순히 제한적 범위에서의 "계산된 양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살리나스의 권위적 근대화와 비교해서 세디요의 정책을 최소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주저 없이 민주적 근대화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가 민주화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민주화가 필요한 경우였다.

그러나 가시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정의의 문제일 것이다. 그나마 제도혁명당의 조합주의, 패트론주의 하에서 통제되어온 사회적 갈등이 기업가 출신의 보다 우파적인 비센테 폭스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갈등이 보다 격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비록 폭스가 세제개혁을 통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있어 복지 수준의 향상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멕시코의 지역적 인종적으로 뿌리깊은 불평등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전통적 갈등완화 메커니즘이 사라진 상황에서 폭스 대통령의 어설픈 자유시장경제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보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민들은 절대로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멕시코인들이 비록 지금은 폭스의 승리에 대해 환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폭스에 대한 환영이라기 보다는 제도혁명당 정권의 종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즉 폭스의 승리는 변화의 요구이다. 그 변화는 우선은 정치적인 요구였지만 이제 점차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 요구로 발전될 것이다. 멕시코인의 3분의 1이상이 아직도 여전히 사회부정의에 대해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폭스 정부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부패척결과 같은 문제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멕시코의 민주주의는 과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경제사회적 결과",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 12권, 제 1호, pp. 79-107.

김병국, "멕시코의 딜레마 -시장과 체제의 모순-", *라틴아메리카 연구*, 제8권, 제1호, pp. 9-6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1995. 1 - 1997. 8.

_____, -세계경제, 1998. 10 - 2000. 7.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와 시장*, 한울, 1993.

이영조,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계간사상*, 98년 여름호, pp. 159-179.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1994. 12 - 2000. 7.

Aguilar Camín, Hector, "El cambio mundial y la democracia en México", Varios, *Coloquio de Invierno. III. México y los Cambios de Nuestro Tiempo*, UNAM/F.C.E., 1992, pp. 38-56.

Ai Camp, Roderic, *La política en México*, Siglo XXI, 1995.

Bruhn, Kathleen, "The Resurrection of the Mexican Left in the 1997 Elections: Implications for the Party System", Domínguez and Alejandro Poiré(Ed.), *Toward Mexico's Democratization*, Routledge, 1999, pp. 88-113.

Domínguez, Jorge I., "The Transformation of Mexico's electoral and party systems, 1988-97", Jorge I. Domínguez and Alejandro Poiré(Ed.), *Toward Mexico's Democratization*, Routledge, 1999, pp. 1-23.

Dresser, Denise, "Falling from the Tightrop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exican Crisis", Sebastian Edwards and Moisés Naím(Ed.), *Mexico 199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7a, pp. 55-79.

_____, "Mexico: Uneasy, Uncertain, Unpredictable", *Current*

History, February 1997b, pp. 47-54.

_____, "Mexico after the July 6 Election: Neither Heaven nor Hell", *Current History*, February 1998, pp. 55-60.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c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6*, UN, 1996.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c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9*, UN, 1999.

Edwards, Sebastian and Moisés Naím, "Introduction: Anatomy and Lessons of Mexico 1994", Sebastian Edwards and Moisés Naím(Ed.), *Mexico 199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7, pp. 1-29.

González Gómez, Mauricio A., "Crisis and Economic Change in Mexico", Susan Kaufman Purcell & Luis Rubio(Ed.), *Mexico Under Zedillo*, Americas Society, 1998, pp. 37-65.

Levy, Daniel C. & Kathleen Bruhn, "Sustained Civilian Rule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Larry Diamond(E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Lynne Rienner Pub., 1999, pp. 519-573.

Luis Calva, José, "Resultados económicos de 1996 y perspectivas para 1997", *Problemas del desarrollo*, Vol. 28, núm. 108, enero-marzo 1997, pp. 7-19.

Mainwaring, Scott and Timothy R. Scully,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Magaloni, Beatriz, "Is the PRI Fading? Economic Performance,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Voting Behavior in the 1994 and 1997 Elections", Domínguez and Alejandro Poiré(Ed.), *Toward Mexico's Democratization*, Routledge, 1999, pp. 203-236.

Paz, Octavio y Enrique Krauze(Coord.), *La Experiencia de la Libertad/ 1. Hacia la sociedad abierta*, Vuelta, 1991.

Radu, Michael, "The Looming Mexican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7, pp. 117-127.

Reding, "Facing Political Reality in Mexico",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7, pp. 103-116.

Rubio, Luis, "Coping with Political Change", Susan Kaufman Purcell & Luis Rubio(Ed.), *Mexico Under Zedillo*, Americas Society, 1998, pp. 5-36.

_____, "La economía vulnerable y sus opciones", *NEXOS*, marzo, 1999, pp. 45-51.

Sarmiento, Sergio, "Mexico's Inevitable Transform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7, pp. 129-139.

Schettino, Macario, "Los primeros dos años", *Problemas del desarrollo*, Vol. 28, núm. 108, enero-marzo 1997, pp. 20-26.

Smith, Peter H., "Political Dimensions of the Peso Crisis", Sebastian Edwards and Moisés Naím(Ed.), *Mexico 1994*,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7, pp. 31-53.

Weintraub, Sidney, "The Complex Situation that is Mexico",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7, pp. 91-101.

(신문)

El Universal, 1995-1999.

La Jornada, 1995-2000.